



코로나19가 바꾼 본관의 풍경이다. 지난 2019학년도(좌측)와 비교했을 때 올해 3월(우측) 본관 앞은 텅비어있다.



(사진=김가연·김지원 기자)

강의실 수업 시기, 상황따라 유동적 새 화상강의 시스템, 30일부터

(ZOOM)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과 종강일, 학위수여식 등의 학사 일정이 연기됐다.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과 박물관도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 휴관할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득이 비대면 강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의실 수업은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우리학교는 지난 2월 28일 개강을 2주 연기하고, 개강 후 2주분을 비대면 강의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향후 추이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1학기 강의를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했거나, 논의 중인 학교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UNIST는 1학기 강의를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KAIST의 경우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기

대면 강의 시작일, 학위수여식 등 학사일정 연기
학사지원과 “앞으로 상황에 맞게 일정 조율할 것”
“급박한 상황 변화로 장기적 계획 수립 어려워”

한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내달 6일 강의실 수업이 예정됐던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24일 총장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 교무처 학사지원팀 권은정 팀장은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상황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며 “앞으로의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종강일은 개강 연기에 따라 1주 연기된 6월 26일이다. 하지만 권 팀장은 “대면 강의가 필요한 실험·실습 과목에 대해서 종강 이후 또는 학기 중 주말에 보충 강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캠퍼스(국제캠) 교무처 학사지원

팀 또한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수업이 추가 연장되면서 이번 학기 휴학 신청기간 또한 연장됐다. 지난 27일까지였던 기존 계획에서 1주 연기된 오는 3일까지 휴학 신청을 받는다.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 기간은 1주씩 연기돼 각각 4월 27일과 6월 2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역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현재 미시행 상태다. 일반대학원 행정실 측은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대학 방침에 따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짐

서울캠 총학, ‘등책위 개회’ 놓고 대학본부와 갈등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지난 26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제52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경희대학교 등록금 재논의를 위한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 개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관 총장실 항의 방문과 릴레이 피케팅에 이은 세 번째 행보다. 이에 등책위 개회 여부를 놓고 대학 본부와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캠 총학 정경원(회계체계무

일관하는 대학본부를 규탄하고 등책위 개회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감과 상실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각 단과대 단체장들과 재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은 정 부회장, 호텔관광대학 정준교(호텔경영학 2018) 회장, 신입생 빙유원(자율전공학 2020) 씨, 미술대학 이소미(회화 2018) 회장, 의과대학 이의주(의학 2017) 회장, 문과대학 남우석(철학 2018) 부회장, 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의 발언에 이어 단체 기자

회견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중간중간 “등책위를 개회하라”는 학생들의 구호가 본관에 울려 퍼지기도 했다.

앞서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사 일정에 변동이 생기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서울캠 총학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 수업에 따른 등록금 재논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2873명 중 94.3%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면으로 이어짐

한균태 제16대 총장 취임 구성원 참여한 민주적 과정의 결과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지난 2월 14일 한균태 신임 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2019년 치러진 총장 선임 과정의 결과다.



경희대학교 제 16대 총장을 뽑기 위한 ‘총장 선출 프로세스’는 2019년 10월 4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총추위가 추천과 공모에 의해 지원한 후보를 검토하고 구성원 단체에 통보해 추천 의뢰 후 구성원 단체별 추천 후보 3인(교수 단체 2인, 직원/학생단체 1인)을 이사회에 보고, 법인이 최종적으로 3인 중 1명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장후보 추천을 위한 구성원 투표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간 이뤄졌다. 투표 결과는 14일 열린 6

차 총추위 회의에서 개표됐고, 총추위는 최종 3인의 후보를 추려 법인에 추천했다. 지침에 따라 최종 3인의 추천 순서는 비공개로 전달됐다.

한균태 후보가 최종 임명된 것은 2019년 12월 26일 제5차 이사회가 열린 날이었다. 경희 사상 최초로 구성

원 손으로 추천한 총장이 임명된 순간이었다. 한 총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총장 선임 과정에 구성원 목소리가 반영된 최초의 ‘민주적 총장선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총장선출에 대한 목소리가 처음 제기된 시점에서 약 10여 년이 흐르고서야 얻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총장 선출제 논의가 결실을 맺은 2019년만 돌아보아도 범경희대책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공식적인 회의체 지위를 두고 갈등을 겪고, 구성원 단체별 투표비율을 두고도 첨예한 논쟁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구성원 대표들은 총장 임명 직후 ‘축제’라며 입을 모았다. 수많은 갈등을 딛고 결실을 맺은 것에 기뻐하기도, 민주적 총장 선출의 기반을 다지는 첫 걸음이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한편, 한 총장은 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열린 소통을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 계획”이라며 “재정 안정성과 위상 제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관련 인터뷰 8면

지면안내

코로나19 대응일지, “많은 가능성 열어두고 만반의 준비”

▶ 4면

“실기실 못쓰니 수업도 안 돼”…난관에 부딪친 비대면 수면

▶ 5면

알림

사령

면
〈편집장〉 이후승(한국어학 2017)
〈국제뉴스팀장〉 이서림(한국어학 2017)

명
〈편집장〉 김지원(국어국문학 2018)
〈국제뉴스팀장〉 문하령(한국어학 2017)